

과기정통부, 범용인공지능(AGI) 시대 준비를 위한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 개최

-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부터 토근 경제 설계, 노동·보건의료·교육의 변화까지 전문가 발제 및 심층 토론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이하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미래전략회의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촉발되는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해 나가야 할 핵심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2차 회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의 서막'을 주제로 마련되었다.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해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목적에만 뛰어난 성능을 보여 활용이 국한되는 현재의 AI와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 이상의 범용적 지능을 갖는 AI'로 통용되고 있다. 주요 전문가들은 2030년대 초중반을 AGI 도래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AG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인프라 확보 → 경제·산업 전환 → 사회 연착륙' 순서로 3건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먼저 KAIST 김재철AI대학원 신진우 교수는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방안'을 주제로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함께 데이터 확보 및 사후학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부터 국산 모델 활용을 늘려 사용 데이터가 다시 학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토근 경제 시대의 법과 제도의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AI 대전환에 따른 비용·책임·편익의 분배 기준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고 짚으며,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기업·데이터 기여자·국가가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철 교수는 'AGI와 사회: AI가 바꾸는 세 개의 시장'을 주제로 노동시장·보건의료·교육을 관통하는 변화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 보호와 의료·교육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제기된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토근 경제 설계, 노동·보건의료·교육 시장 재편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연구개발·국방·방송 등 AGI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AI 발전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며, "AGI 시대의 도래는 시간의 문제일 뿐 예정된 미래인 만큼, 우리도 이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 제도 등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GI는 개별 기술·산업의 혁신을 넘어 국가 체제 전반을 재편하고 우리 삶의 모습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산업의 변화는 물론 노동·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AGI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책임자 담당자
-------	------------------------------------	------------

참고 1 제2차 「과학기술 · 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 계획[안]

□ 추진 배경

- 과학기술·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2030~35년 대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핵심 아젠다 발굴 및 심층 논의

□ 2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 8. 27.(목) 09:30~11:20 /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31층)
- (참석) 부총리, 대변인, 인공지능정책실장,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책보좌관, 자문위원 ※ [참고2]
- (주요 내용) 'AGI 시대의 서막: 기술 확보에서 사회적 연착륙까지'를 주제로 핵심 아젠다* 전문가 발제 및 자유토론 진행
* 기술·인프라 확보 → 경제·산업 전환 → 사회 연착륙

□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35 (5')	▶ 개회	
09:35~09:40 (5')	▶ 인사말씀	부총리
09:40~09:45 (5')	▶ 참석자 소개	
09:45~10:15 (30')	▶ 발제: AGI 시대의 서막	
	- (기술·인프라)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방안 '우리는 얼마나 절실한가?'	신진우 KAIST 교수
	- (경제) 토른 경제 시대의 법과 제도의 설계 'AI 대전환 시대, 비용·책임·편익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	최경진 가천대 교수
	- (사회) AGI와 사회: AI가 바꾸는 세 개의 시장 '노동·보건·의료·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김현철 연세대 교수
10:15~11:15 (60')	▶ 자유토론	
11:15~11:20 (5')	▶ 마무리 및 폐회	

참고 2 「과학기술 · 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 참석위원 명단

※ 성명 가나다순 정렬

성 명	소속 · 직위
권한솔	■ (주)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
김근수	■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상욱	■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영오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및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김영욱	■ HD현대그룹 CAO
김원준	■ 삼성글로벌리서치 대표
김창범	■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현철	■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원장 및 의과대학 교수
박수경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신진우	■ KAIST 김재철AI대학원 및 전기·전자공학부 석좌교수
양병희	■ 한국대드론산업협회 회장
이채린	■ 클라썸 대표
이혜민	■ 핀다 대표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AI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장
최민근	■ MBC 프로듀서
황 희	■ 카카오헬스케어 대표